인간승리 화천기공을 찾아서 ②

△ 결혼 후 가족사진.

광주 파철공소에 스카우트

(지난호에 이어)

당시 나에게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수입도 수입이려니와 내 적성에 맞는 기계 다루는 일을 한다는 것이었다. 어쩌다가 기분 상한 일을 당했거나 복잡한 일로 우울할 때도 주물을 만지거나 기계를 다룰라치면 잡념이 말끔히 가시곤 했었다. 나 스스로도 '나는 기계 인생인 것 같다' 주위 사람들이 '저 놈은 기계를 만지려고 세상에 태어난 것 같다'고 하였다.

어느 날 공장 안에 '광주의 큰 공장에서 기술자를 데려가기 위해 사람이 왔다'는 소문이 돌았다. 찾아온 사람은 광주 도모애(앞으로는 우리 발음대로 '파'로 표기함)철공소(巴鐵工所)에서 일한다는 윤대복이라는 사람이었다. 조건은 실로 파격적이었다. 1인당 150원의 선금 외에 매월 150원의 수입을 보장하겠다고 장담했다.

아버지께서는 나의 광주행을 한사코 만류하셨다. 그러나 어머니의 생각은 달랐다. '사람도 크게 되려면 서울로 가는데 승관이도 앞으로 기술자로 대성하려면 좀더 큰 곳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며 광주로 나갈 것을 권하셨다. 전주와 광주는 1940년 당시만 해도 기차로 5시간을 달려야 했다. 이때 인연을 맺은 광주에서 나는 60년 가까운 세월을 살아왔다.

당시 광주시 대의동 17번지에 있던 파철공소로 첫 출근을 했다. 주인은 일본인 시게우라(繁浦貞次郞)이며 주로 전남도청에서 발주한 저수지나 큰 강의 농업용수를 막는 철제수문 등을 하청받아 제작하고 있었다. 나는 1시간 먼저 공장에 나와 일하고 퇴근 또한 1시간 이상 늦추었다. 그러면서도 내가 만든 물건은 항상 주인이 마음에 들어 했다. 한 달을 일하고 나니 약속대로 150원이란 수입이 손에 들어왔다.

가족들의 광주 이사와 결혼

그 무렵의 월급 60원은 꽤 큰 수입이었다. 나는 약간의 용돈만을 남겨놓고 40원 정도씩을 전주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냈다. 1년 뒤인 1941년 3월에는 전주에 있는 가족들을 광주로 모셔왔다.

내 나이도 스물네 살. 나는 신부의 얼굴 한 번 못 보고 결혼을 하게 되었다. 1941년 12월 지참봉 응현(池應鉉) 씨의 장녀인 지갑례(池甲禮) 규수와 처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나는 150원을 가지고 결혼식을 올렸다. 식구가 7으로 늘어났다. 어머니는 하숙이라도 쳐 나의 힘을 덜어주려고 하였다.

일본인 주인은 무이자로 흔쾌히 돈을 빌려주었다. 산수동 근처에다 집을 장만했다. 대지 70평에 네 칸 짜리 한옥이었는데 새로 방 두 칸을 달아냈다. 두 칸은 우리 식구들이 살고 네 칸에 하숙생을 받았다. 하숙을 시작할 무렵 식량사정이 극히 나빠졌는데, 일제가 태평양전쟁을 일으키면서 조선의 식량을 대거 일본으로 징발해 갔기 때문이었다. 나는 공장으로 할당된 쌀을 받아 겨우 생활은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하숙을 치는 일은 무척 힘이 들었다. 친구가 싸전을 하고 있는 송정리까지 가서 쌀을 팔아다 날라야 했다.

그러면서 나는 일류 기술자가 되려면 도면 보는 방법과 중심찾기를 알아야 한다. 그때의 노력으로 나는 도면 보는 방법이며 선(線)을 연출하는 방법 등을 터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근 1년 동안 도면 기술을 배우나 나자 내 기술은 크게 향상되었고 모든 일에서 월등한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다.

2. 8.15해방과 주인으로 새 출발

태평양전쟁이 막바지에 이르자 일제는 가정의 필수품인 솥이나 농기구, 심지어 놋그릇, 숟가락, 소나무 뿌리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모든 물자를 징발해서 전쟁의 마지막 제물로 삼았다.

그런데 이상한 낌새가 주인이 보관하고 있던 우리나라 유명 예술인들의 그림이며, 글씨, 도자기 등 골동품들을 어디론가 실어 나르는 것으로도 알 수 있었다. 내가 처음 이 공장에 왔을 때만 해도 서화 몇 점과 청자, 백자 등 도자기 몇 점이 고작이었는데 그가 내보낸 물건만 해도 4톤 트럭으로 1대 분은 족히 넘을 것 같았다.

1945년 8월 15일, 정오를 알리는 시보에 이어 히로히토(裕仁)의 힘없는 목소리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왔다. '나의 선량하고 충실한 신민이여—. 나는 오늘 정부에 명하여 미국, 영국, 중국 및 소련 정부의 공동성명을 무조건 수락할 것을 통고시켰노라.' 무조건 항복방송은 한참동안 지속되었다.

얼마 후 주인 시게우라가 나를 불렀다.

"오늘부터 조선은 해방이 됐다. 그러니 오늘은 일을 하지 말고 집에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조만간 이승만 박사와 김구 선생이 돌아와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아주 훌륭한 분들이니 잘 받들어 모셔야 할 것이다."

공장으로 돌아온 나는 직원들에게 주인의 말을 전하고 모두들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했다. 방금 전까지 하고 있던 일을 마저 끝낼 요양으로 기계를 만지고 있는데 주인이 내게로 왔다. 한 가지 부탁이 있으니 내일 오전 10시까지 공장으로 좀 나와 달라고 했다. 다음 날 공장으로 나가자 주인은 나를 반갑게 맞으면서 곡성 입면에 설치한 양수기 대금을 좀 받아다 달라는 것이었다. (다음호에 계속)

우리나라 고대사 揆園史話 ⑮

▣ 一沙 權 正 孝 옮김

(지난호에 이어)

항차 그 땅은 홀로 떨어져 있으면서 고요하고 평온하며 산악은 정결하고 바다와 하늘은 가든히 개어 있으니, 곧 안존하고 깊으며 밝게 빛나는 기운이 사람으로 하여금 신명이 오르내리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해준다. 내가 그 땅을 유람하며 살펴보니 제단은 돌을 포개어 위는 둥글고 아래로는 네모지게 하였는데, 아주 많이 무너져 있던 것을 인조(仁祖) 17년에 다시 고쳐서 쌓았다고 한다. 오호라! 평양의 옛 읍성과 임금성의 옛 궁궐은 이제 부서진 초석의 조각하나 남아 있지 않은데 유독 한 채의 천단(天壇)만이 그 모습의 골격을 보존하고 있으니, 이는 편벽된 바다의 후미진 곳이기에 사람의 자취가 드물게 닿은 까닭이 어찌 아니겠는가. 나는 실로 옛일을 그리워하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겠구나!

御國三十餘年, 正値洪水, 浩波溜天, 懷襄遼滿之(時)[野], 浿水漲溢平壤沈潛. 乃遣四子, 遍相土地之宜, 占居阿斯達下唐莊之野, 今文化九月山下, 有莊莊坪, 卽其地也. 余嘗觀其地, 方數百里無大河, 而水勢東走, 原土高燥, 可避西來之水矣. 乃結廬阿斯達下, 使夫婁, 盡濟平壤之民, 復治平水土屢年(以)[而]後功完, 唐莊之民, 亦已安土而樂居矣. 今俗士或云: [檀君遭洪水, 使彭吳治山川, 奠民居……]云云, 而《漢書·食貨志》明書: [武帝卽位數年, 彭吳穿濊( )[貊] 朝鮮.]等句, 則是乃, 東西有兩個彭吳, 相前後而同掌朝鮮水土之役也, 史上豈有, 如此奇巧事耶. 盖夫婁[與]弗虞同音, 且漢音虞 吳相(同)[通], 而彭 弗兩字之初聲, 皆與夫音相近, 則後人忘夫婁字而只記其音, 又訛而只記彭吳也. 今, 人家有夫婁壇地者, 籬落淨潔處, 築土爲壇, 土器盛禾穀, 置於壇上, 編(緝)[葺]藁艸掩之, 每十月, 必薦之以新穀, 或稱業主嘉利, 卽報賽夫婁氏治水奠居之義, 賴爲鎭護之神[也].

나라를 다스린지 30여 년만에 홍수를 만났는데, 어마어마한 파도는 하늘까지 치솟아 요만(遼滿)의 들녘을 품으며 올라서니 패수의 물은 불어 넘치고 평양은 물에 잠겨 버렸다. 이에 네 아들을 보내 마땅한 땅을 두루 살피게 하고는 아사달(阿斯達) 아래 당장(唐莊)의 들녘을 차지하여 거처케 하였는데, 지금의 문화(文化)

구월산(九月山) 아래 장장평(莊莊坪)이 있으니 바로 그 땅이다.

내가 그 땅을 살펴보니 사방 수백리에 큰 물줄기가 없고 물의 형세는 동쪽으로 내달으며 넓은 들녘의 땅은 높고도 건조하여 서쪽에서 오는 물을 피할 수가 있을 것 같았다. 이에 아사달 아래에 띠풀집을 짓고 부루로 하여금 평양의 백성들을 모두 구제하게 하고, 다시 물과 흙을 다스리기를 몇 년 한 후에 그 일을 온전하게 하니, 당장(唐莊)의 백성 또한 그 땅에서 편안하게 기거하며 즐겁게 생활하게 되었다. 지금의 세속 선비들이 혹 이르기를 [단군이 홍수를 만나자 팽오(彭吳)로 하여금 산천을 다스려 백성들의 거처를 정하게 하고……]라고 들 하는데,

한서.식화지(食貨志)》에 [무제가 즉위한지 몇 년만에 팽오가 예맥 및 조선과의 길을 터놓았다]는 등의 문구가 분명히 적혀 있으니, 이는 곧 동쪽과 서쪽에 두 명의 팽오가 연이어 앞뒤로 있으면서 조선의 물과 흙을 관장하는 일을 맡았다는 것인데, 역사에 어찌 이와 같이 기이하고 공교로운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는 아마도 '부루(夫婁)'와 '불우(弗虞)'는 음이 같고 또한 한나라 소리로 '우(憂)'와 '오(吳)'는 서로 통하며 '팽(彭)'과 '불(弗)' 두 글자의 초성이 모두 '부(夫)'의 음과 서로 가까우므로, 훗날의 사람들이 '부루(夫婁)'라는 글자는 잊어버리고 단지 그 소리만을 기록하면서 또한 잘못 전하여져 단지 '팽오(彭吳)'라고 만 기록하게 된 것이다.

지금 사람들의 집에는 '부루단지(夫婁壇地)'라는 것이 있는데, 울타리를 친 깨끗한 곳에 흙을 쌓아 제단을 만들고 토기에 곡식을 담아 제단 위에 놓아 볏짚으로 지붕을 이어 그것을 덮어두고 매 10월마다 반드시 새로운 곡식을 올리는 것으로서 혹은 '업주가리(業主嘉利)'라고 이름하기도 하는데, 곧 부루씨가 물을 다스리고 거처를 정하여 준 것에 보답하여 제사를 지내는 의미이니, 이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누르고 백성을 보호하는 신이 된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임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합니다

▣ 총재단회비

△권계동(상임부총재)	100만원

▣ 종무위원회비

△권오극(안동)	20만원
△권오탁(안동)	20만원
△권대길(구미)	20만원
△권호준(대전)	20만원
△권희철(대전)	20만원
△권박원(대전)	20만원
△권순걸(영주)	20만원
△권병도(대구)	20만원
소 계	160만원

▣ 대의원회비

△권종호(대전)	10만원
△권오교(대구)	10만원
△권용기(대전)	10만원
△권호량(예천)	10만원
소 계	40만원

▣ 찬조금

△문경 희정공 문중	5만원

합 계 305만원

사람을 의심하며 일을 맡긴 유유

▣ 권 중 달 (중앙대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의심하면 일을 맡기지 말고 일을 맡겼다면 의심하지 말라'는 명언이 있다. 이것은 인사(人事)에 있어서 철칙같이 사용되는 말이고, 이 원칙을 어겼을 때에는 예상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일을 종종 본다. 이러한 예가 바로 위진남북조 시대에 있었다.

북쪽을 오호에게 빼앗기고 남쪽으로 쫓겨 내려왔던 동진(東晉)의 군대가 오래간만에 북쪽으로 쳐 올라가서 옛날 왕조의 도읍이었던 장안(長安)을 점령하였다. 이를 주도한 사람은 동진의 유유(劉裕)였다. 그는 이미 동진에서 성장하여 동진에서 전권(全權)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유유는 장안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다. 그가 일선에 오래 머무르게 되면 동진의 조정에서 그를 제거하는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이때에 그가 조정에 믿는 사람을 남겨 두었었는데, 이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까지 온 마당에 더 이상 장안에 머무를 수가 없었다.

조정으로 돌아가야 하는 유유의 입장에서는 모처럼 장악한 장안을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 당연히 누군가에게 장안을 맡겨야 되었다. 이 교두보를 계속 유지할 수만 있다면 동진이 다시 고토(故土)를 회복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유는 중대한 인사 조치를 해야 했다.

그는 그를 도와서 장안을 함락시키는데, 큰 공로를 세운 사람들로 세울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에게는 원래 장안 출신인 왕진악(王鎭惡)이란 사람이 있었다. 용감하고 지혜가 있어서 장안을 탈환하는데 큰 공을 세웠던 사람이다. 반면에 유유와 함께 북쪽으로 갈 때에 함께 데리고 간 심전자(沈田子)란 사람이 있었다.

이 두 사람은 유유가 장안에 있는 한 겉으로 충돌할 수 없었지만 은연중에 서로 공로 다툼을 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공로를 가지고 따져 본다면 북쪽 출신의 왕진악의 공로가 남쪽 출신을 심전자보다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유유는 왕진악에게 큰 책임을 맡기면서 자기의 아들 11살짜리 유의진을 최고 책임자로 두었다.

그러자 유유를 따라온 심전자 같은 사람들은 떠나는 유유에게 "왕진악의 집이 관중(關中)에 있으니 보장하여 믿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왕진악은 북쪽 출신이니 그가 유유의 말을 좇을지 믿을 수가 없다는 말이었다. 그러나 능력으로 본다면 왕진악에게 일을 맡길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 유유는 "지금 경의 문무(文武)장사와 날쌘 병사 1만 명을 남겨놓을 것이니 그가 만일 좋지 못한 일을 하고자 하여도 스스로 멸망하기에 딱 알맞을 뿐이오. 다시는 여러 말을 하지 마시오."라고 하며 심전자의 입을 막았다.

유유는 만약에 왕진악이 다른 생각을 가진다고 해도 남쪽에서 함께 온 군사를 1만 명이나 남겨 놓을 것이니 왕진악이 다른 생각을 갖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다. 유유는 왕진악에게 일을 맡기면서 한 편으로는 그를 견제할 세력을 남겨 둔 것이다.

그러나 유유가 조정으로 돌아 간 다음에 심전자의 무리들은 왕진악으로 꾀어내어 죽인다. 물론 왕진악이 남쪽에서 올라 온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한다는 이유를 가지고 조치한 것이다. 자중지 난이었다. 그러나 왕진악을 죽인 결과 동진의 세력은 장안에서 쫓겨났다. 유유는 모처럼 만의 기회를 송두리째 날려 버린 것이다.

이를 보고 사마광은 100년 동안 노략질 당한 천리의 땅을 잃은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100년 만에 얻은 기회를 한 순간 인사조치 하나 잘 못으로 놓진 사건이다. 왕진악을 믿지 못했다면 맡기지 말아야 했던 일이었다. 유유는 한 순간의 실수로 100년 만에 찾아 온 기회를 잃은 것이다.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한 것같이 보인다. (다음호에 계속)

권율과 전라도 사람들 ②

▣ 김 영 헌 (광주시청 북구청 문화관광과장)

(지난호에 이어)

광주로 돌아와 약법 10조 발표

이광은 간신히 잔병을 이끌고 처량하게 전주로 가고, 윤선각이 이끄는 충청도 군은 한 번도 싸우지 못한 채 공주로 향했다. 그리고 김수는 경상도로 철수했다. 이경록과 권율은 각각 나주와 광주로 향했다.

중군장으로 참전했던 광주목사 권율은 황진(남원), 위대기(장흥), 공시억(화순), 조카 승경 등과 함께 큰 손실 없이 군사를 이끌고 광주로 돌아왔다. 그는 흩어진 군사를 재정비하고 민심을 수습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생각했다. 이때 2차례에 걸친 근왕군의 실패로 전라도 각 군현은 인심이 흉흉하였고, 유언비어가 난무했다. 광주 또한 마찬가지였다.

광주읍성에 도착한 권율은 민심을 수습하고 후방을 안정시키기 위해 '약법 10조'를 발표하였다. 『만취당실기』에 실려 있다.

제1조 농업과 잠업에 게으르지 말고 세금과 공납에 적극 힘쓴다. 無怠農桑 克勤貢稅

제2조 과업을 권하고 훈계 가르치기를 평상시보다 더 한다. 勸課敎訓 尤倍平時

제3조 활쏘기와 말타기를 철저히 익히고 자제들도 자발적으로 따른다. 服習弓馬 續發子弟

제4조 민심이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 뜬소문을 믿지 말라. 勿信訛言 以動民心

제5조 이웃고을사람(피난민)이 와 의지하면 힘써 위로한다. 隣民來附 勞之徠之

제6조 대나무를 재배하고 철을 캐서 군기제작에 협조한다. 養竹採鐵 城助軍器

제7조 여자는 자신의 일에 힘쓰고 지아비를 대신하여 가정을 주관한다. 女勤女工 代夫幹家

제8조 음식과 옷을 아껴 군량에 보탬이 되게 한다. 節食約衣 以敷軍糧

제9조 관리와 백성은 서로 믿고 한 가족처럼 여긴다. 吏民相孚 視周一家

제10조 관청의 업무를 어지럽힐 수 있으므로 서로 다투어 송사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無相爭訟 以擾官政

전시 비상시국을 극복하기 위한 광주 군민의 행동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관과 민, 민과 민이 전시를 맞아 실천해야 할 일들을 세부적으로 열거하여 선포함으로써 군민을 하나로 묶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웃고을사람(피난민)이 와 의지하면 힘써 위로한다."는 조항은 권율의 인간성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난을 당하여 어려운 사람을 돕는 애민(愛民)의 정신이야말로 광주와 전라도민이 그를 의지하며, 따르고, 신뢰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음호에 계속)

자치통감 3번 태어나다

권중달 지음
국판변형(137×195) | 값11,000원 | 288페이지
출간발행일 : 2013년 10월 28일

1. 30만 권 분의 종이를 준비하라!
2. 《자치통감》으로 인재를 뽑으시오!
3. 해와 별과 같은 책으로 인식하다
4. 사마광은 역사가인가, 정치가인가?
5. 북송의 현실과 왕안석의 신법
6.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대립
7. 맹자의 왕안석과 공자의 사마광
8. 사마광은 왜 급진적 개혁을 반대했나?
9. 남북으로 갈린 사람들
10. 사마광과 왕안석을 저울질한 신종
11. 제일 좋은 역사책 《자치통감》
12. 《자치통감》을 이어받은 저작들
13. 세종이 밤새워 읽은 까닭은?

◈ 책소개

1084년 사마광이 《자치통감》을 찬술하고 1434년 세종대왕은 이에 훈의를 달다. 그리고 2010년에 한글로 다시 태어나다.

본보 자문위원이며 자치통감연구의 권위자인 역사학자 권중달 교수가 새 책 '자치통감 세 번 태어나다'를 지난 10월 28일 도서출판 산화에서 출간하였다. 이 책은 널리 알려진 자치통감이 언제 왜 편찬되었는지, 그리고 이 책이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세종대왕이 이 책을 관료들에게 읽히려고 '자치통감훈의'를 편찬하게 된 일을 재미있게 서술하고 있다.

權寧祥 부총재 사무실 이전

대종원 權寧祥 부총재(현, 변호사) 사무실을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6-4번지 중앙빌딩 201호에서 2013년 11월 18일 자로
((우)158-860)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신정동 389번지 남부빌딩 213호로 이전하였습니다.
배전의 지도를 바랍니다.

◈ 사무실 : 02)554-4013
◈ F A X : 02)554-4017